

# 반모음 j에 의한 반모음 j 첨가의 변이\*

-경상방언을 중심으로-

이혁화\*\*

|| 차례 ||

- I. 서론
- II. 논의 자료의 정리
- III. 음운론적 해석과 설명
  - 1. 첨가의 원인
  - 2. 첨가되는 분절음
- IV. 반모음 j 첨가의 통시적 의미
- V. 마무리

## 【국문초록】

경상방언에는 반모음 j에 의해 반모음 j가 수의적으로 첨가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 현상은 비음운론적인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현상으로서 반모음 j에 의해 촉발되지만 첨가의 이유가 무엇이며 첨가되는 분절음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연속체인 음성형을 불연속적인 분절음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j 첨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음절수와 성조 측면에서의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첨가되는 분절음은 음운론적으로 반모음 j로 해석하였다. 수의적으로 반모음 j가 첨가되어 ‘모음-j-모음’의 연쇄가 ‘모음-jj-모음’의 연쇄와 공존하는 현대국어의 변이 현상을 중세국어 시기의 변이 현상과 관련지어 파악함으로써 통시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변이

\* 이 연구는 2013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심사 과정에서 익명의 심사 위원들은 필자가 미처 두루 살피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 주셨다. 세 분의 심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현상의 속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경상방언, 변이 현상, 반모음 j, 음운론적 해석과 설명, 첨가의 이유, 첨가되는 분절음

## I. 서론

국어에서 반모음 j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아 왔다. 반모음 j는 후행하는 모음과 결합하여 ‘ㅵ, ㅶ, ㅷ, ㅸ, ㅹ, ㅺ, ㅻ’ 등의 상향이중모음을, 그리고 선행하는 모음 ‘-’와 결합하여 하향이중모음 ‘-i(j)’를 형성하는데, 상향이중모음과 하향이중모음은 모두 음절(音節)을 구성하는 하위 성분인 중성(中聲)으로 기능한다.

또한 반모음 j는 주변의 다른 분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움라우트 현상과 구개음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움라우트 현상에서 반모음 j는 모음 ‘i’와 함께 선행 음절의 후설모음을 전설모음으로 바꾸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화주(同化主)로 기능한다. 예 : 학교(學校) > 핵교, 왕겨 > 뽕겨 등. 구개음화 현상에서도 반모음 j는 모음 ‘i’와 함께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를 경구개 위치로 바꾸는 동화주로 기능한다. 예 : 동다(好) > 좋다, 텃디(天地) > 천지 등.

그런데 현대국어 공시적으로 반모음 j가 주변의 분절음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는 변이 현상이 존재한다. 이 현상은 이혁화(2007)에서 경북 서부방언의 종결어미 ‘-어여’를 고찰하면서 반모음 j에 의한 수의적 실현 현상을 단편적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국어의 여러 방언 중에서 주로 경상방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1) 나 집에.	[kajə~kaijə]	나 밥 해여.	[hejə~heijə]
너 어데 가여?	[kajə~kaijə]	너 머 해여?	[hejə~heijə]
빨리 줌 가여.	[kajə~kaijə]	빨리 줌 해여.	[hejə~heijə]
같이 줌 가여.	[kajə~kaijə]	같이 줌 해여.	[hejə~heijə]

(2) “모음 ‘이’가 실현된다고 하였지만 음성적으로는 반모음 j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중략) 이를 [kaijə]와 같이 ‘i’로 적은 것은 현대 경상방언에서 하향 이중모음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음절수와 관련해서도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혁화 2007 : 339, 각주 7)

하지만 이 현상은 존재한다는 것만 지적되었을 뿐, 이 현상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어떤 환경에서 첨가가 일어나며 첨가되는 분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첨가되는 분절음으로 인한 연쇄가 음절 구성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의 [kaijə~heijə]과 같이 반모음 j 앞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분절음을 모음 ‘i’로 파악해야 할지 아니면 반모음 j로 파악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실정이다.<sup>1)</sup>

이제 우리는 (1)과 같은 현상에 대해 자료를 보강하고, 반모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중모음과 음절 문제를 파헤쳐 보려고 한다. (2)와 같은 유보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첨가되는 분절음이 모음 ‘i’인지 반모음 ‘j’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중모음과 음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음절의 구성과 관련된 근거는 경상방언에 존재하는 성조(聲調)가 큰

1) 이 문제는 하향이중모음을 Vj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Vi로 파악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최근 정승철·정인호(2010)에서는 이중모음과 반모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김종규(2010)에서는 반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역할을 할 것이다. 논의에 이용되는 자료는 구술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경상도 편이나 방언 사전류를 활용하는데, 별도의 표시가 없는 자료는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 II. 논의 자료의 정리

현대 경상방언에는 반모음 j에 의한 수의적 변이 현상이 많이 실현된다. 이 현상은 반모음 j가 포함된 구성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는데, 개음절인 선행 음절에 음성적으로 모음 ‘이(i)와 비슷한 분절음이 첨가되는 것이 특징적이다.<sup>2)</sup> 먼저 (1)에서 제시한 자료를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3) 나 집에 가여. [kajə~kaijə]	나 밥 해여. [hejə~heijə]
너 어테 가여? [kajə~kaijə]	너 머 해여? [hejə~heijə]
빨리 좀 가여. [kajə~kaijə]	빨리 좀 해여. [hejə~heijə]
같이 좀 가여. [kajə~kaijə]	같이 좀 해여. [hejə~heijə]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a\$jə, ɛ\$jə] 등은(\$ : 음절 경계) 수의적으로 [ai\$jə, ei\$jə] 등과 유사하게 실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 음절의 모음이 여타의 모음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선행 음절의 모음을 기준으로 하여 음성형 ‘아여, 어여, 오여, 우여, 애여’ 등이 실현되는 예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2) 이 현상은 일상 발화에서 높은 빈도로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논의에서 음운론적 논의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 현상에 대한 인지나 관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현상이 수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공식적인 음운 체계 안에서 포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3)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6모음 체계의 경상 방언에서 선행 모음이 ‘이’인

- (4) 아여 몰라여 [mol\$la\$ʃjə~mol\$lai\$ʃjə]  
 어여 먹어여 [mə\$gə\$ʃjə~mə\$gəi\$ʃjə]  
 오여 조여 [ʃo\$ʃjə~ʃoi\$ʃjə]  
 우여 주어 [ʃu\$ʃjə~ʃui\$ʃjə]  
 애여 빼여 [p'ɛ\$ʃjə~p'ei\$ʃjə]

(4)와 같이 실현되는 현상은 경북의 서부방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상 지역에서는 하위 지역에 따라 ‘-아예, -아요’ 등과 같이 반모음 j가 포함된 다양한 어미가 사용되는데,<sup>4)</sup> 이들과 결합한 형식에서도 이러한 변이 현상이 그대로 발견된다.

- (5) 몰라예[mol\$la\$ʃje~mol\$lai\$ʃje] 몰라요[mol\$la\$ʃjo~mol\$lai\$ʃjo]  
 먹어예[mə\$gə\$ʃje~mə\$gəi\$ʃje] 먹어요[mə\$gə\$ʃjo~mə\$gəi\$ʃjo]

경우도 존재한다. 그런데 선행 모음이 ‘이’일 경우에는 관찰 차원에서부터 실현 양상에 대한 과약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다 큰 차원에서의 통찰이 필요하다.

- 4) ‘먹어예, 선생님예, 집예’ 등과 같이 종결어미 ‘-아예’나 호격조사 혹은 보조사 ‘-예’ 등이 사용되는 지역은 대체로 경남 전역과 경북의 중남부 지역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예’ 형의 사용 지역을 명확히 단언키는 어렵지만, 김형규(1974 : 431)에서는 “할까 예? 찾을까 예?”가 실현되는 지역으로 경북의 ‘의성, 군위, 선산, 금릉, 칠곡, 대구, 달성, 경산, 영천, 경주, 월성, 청도, 고령, 성주’와 경남의 ‘합천, 의령, 산청, 함안, 창원, 마산, 진주, 진양, 하동, 울산, 울주, 양산, 김해, 거제’를 제시한 바 있다. 최학근(1978 : 1594) 역시 “머 할까예?, 밥 먹을까예?”의 사용 지역으로 경북의 ‘영천, 경산, 김천(극소), 군위, 의성, 왜관, 경주, 대구, 성주, 고령’과 경남의 ‘진주, 하동, 사천, 울산, 양산, 김해, 창원, 마산, 진해, 산청, 함안, 의령, 합천, 거제’를 제시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경북 북부지역을 제외한 경상 지역 전역에서 ‘예’ 형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먹어요, 선생님요, 집요’ 등과 같이 ‘요’ 형이 사용되는 지역 또한 최학근(1978 : 1594)에서는 “머 할까요?, 밥 먹을까요?” 항목에서 경북의 ‘영천, 경산, 김천, 영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울진, 포항, 경주, 군위, 의성, 왜관, 성주’와 경남의 ‘하동, 사천, 부산, 울산, 동래, 양산, 김해, 창원, 마산, 진해, 산청, 함안, 의령, 함양, 거창, 고성, 충무, 남해, 거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요’ 형이 ‘예’ 형보다 분포가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조에[ʃo\$je~ʃoi\$je]	조요[ʃo\$jo~ʃoi\$jo]
주에[ʃu\$je~ʃui\$je]	주요[ʃu\$jo~ʃui\$jo]
빼에[p'ɛ\$je~p'ei\$je]	빼요[p'ɛ\$jo~p'ei\$jo]

이러한 현상은 체언에 호격조사 ‘-야’ 그리고 보조사 ‘-요’가 결합되는 환경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 (6) 영아-야 [jəŋ\$ə\$ja~jəŋ\$ai\$ja]<sup>5)</sup> 배차-요 [pe\$ʃa\$jo~pe\$ʃai\$jo]  
 준서-야 [ʃun\$ə\$ja~ʃun\$əi\$ja] 상어-요 [saŋ\$ə\$jo~saŋ\$əi\$jo]  
 영호-야 [jəŋ\$ho\$ja~jəŋ\$hoi\$ja] 부고-요 [pu\$go\$jo~pu\$goi\$jo]  
 상수-야 [saŋ\$su\$ja~saŋ\$sui\$ja] 고무-요 [ko\$mu\$jo~ko\$mui\$jo]  
 순애-야 [su\$ne\$ja~su\$nei\$ja] 아배-요 [a\$be\$jo~a\$bei\$jo]

또한 다음과 같이 형태소 내부나 일부 감탄사의 경우에도 이 현상은 실현된다.

- (7) 아야 아야 [a\$ja~ai\$ja]  
 오냐 오야 [o\$ja~oi\$ja]  
 그냥 그양 [ki\$jaŋ~kii\$jaŋ]  
 고안 고안 놈 [ko\$jaŋ\$nom~koi\$jaŋ\$nom]  
 -라야 책이라야 [ʃ'he\$gi\$ra\$ja~ʃ'he\$gi\$rai\$ja]

그간의 방언 자료집이나 구술 발화 자료에는 이러한 수의적인 현상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0)의 구술 발화

5) 여기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아, 어, 오, 우, 애’로 끝나는 체언들이다. 호격조사 ‘-야’가 결합한 ‘영아, 준서, 영호, 상수, 순애’는 모두 인명(人名)이며, 보조사 ‘-요’가 결합한 명사 ‘배차, 상어, 부고, 고무, 아배’는 각각 ‘배추(白菜), 상어(鮫), 부고(訃告), 고모(姑母), 아버지(父)’에 대응하는 경상방언형이다.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 (8) 가. “오이야. 그라마 동새이 땡기 오너라.”(=오냐, 그러면 동생이 다녀 오너라.) [경북 월성, 구비 7-2 : 695]  
 나. “[말리듯이]아이, 치아라 아이야. 너 힘에 그래 빛진다.”(=아니, 치 워라. 애야. 너 힘에 부친다.) [경북 예천, 구비 7-17 : 330]  
 다. “호배야 호배야 호배이야, 잇프러 밥해라.”(=호배[人名]야, 호배야, 호배야, 빨리 밥해라.) [경북 월성, 7-2 : 419]  
 르. “그릇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바가치 한 바가치 주어요.”(=그릇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바가지 한 바가지 줘요.) [경남 의령, 8-10 : 142]  
 모. “아하, 그럼 자네 성이 뭐이요?”(= 아하, 그럼 자네 성이 뭐요?) [경북 달성, 구비 7-14 : 121]

(8)의 예들은 모두 어말의 ‘야, 요’ 앞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모음 ‘이’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8가)은 중앙어 ‘오냐’에 대응되는 형태로서, 흔히 ‘오야’로도 표기된다.<sup>6)</sup> (8나)은 중앙어 ‘애’에 대응되는 ‘아(<이 아<이 아이)’에 호격조사 ‘-야’가 결합된 것이며,<sup>7)</sup> (8다)은 인명인 ‘호배’에 호격조사 ‘-야’가 결합된 것이다. 특히 (8다)에서는 ‘호배야’와 ‘호배이야’가 함께 표기에 등장하여 수의적인 현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8르)은 ‘주-’ (授)에 하소체의 평서형어미 ‘-(으)요’가 결합한 형식인데, 흔히 ‘주요’로 표기된다. (8모)에서 ‘뭐이요’의 ‘-이-’는 서술격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문맥에서 화자가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상대경어법은

6) 부산말 사전인 양희주(2008 : 205)에는 “오이야”가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다. “취직이 댜단 말기? 오이야, 고맙다, 내 손지야.” 또한 이의 변이형인 것으로 판단되는 “우이 야” 역시 표제어로 올라 있다. “할무이 오싯입니까…우이야, 내 새끼야. 너겨들 보고 접어서 안 왔다.”

7) 양희주(2008 : 190)에는 “아이야”가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다. “아이야, 나 땀에 그런 다른 그만두어라”

‘하소’체로서, 의문형 종결어미는 ‘-소/요’이다. 이때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서술격조사의 실현이 달라지는데, ‘책이요?/코요?’와 같이 체언 말이 개음절일 경우에 서술격조사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뭐이요?’의 ‘-이-’는 서술격조사가 아니다. 체언 ‘뭐’ 다음에는 ‘-이요’가 아니라 ‘-요’가 바로 통합되어 ‘뭐요’로 실현되는데, 실제 방언 자료를 통해서 ‘뭐요’가 매우 흔하게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뭐이요’와 ‘뭐요’는 수의적으로 공존하는 형식으로서, ‘뭐이요’는 어말의 ‘요’ 앞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이’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이 현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현상은 반모음이 포함된 ‘야, 여, 요, 유, 예’ 등을 통해서 촉발되며, 그 결과는 모음 ‘이’(i)와 유사한 분절음이 선행 음절에 첨가된다. 둘째, 이 현상은 형태소 경계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며 형태소 내부의 일부 예에서도 수의적으로 실현된다.<sup>8)</sup> 셋째, 이 현상은 문법 범주나 형태소 경계의 유무 등에 상관 없이 실현되므로 비음운론적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순수한 음성 혹은 음운 현상이다. 따라서 이 현상은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9) \emptyset \rightarrow i / V_j \text{ (수의적, } V \text{는 모음)}$$

### Ⅲ. 음운론적 해석과 설명

이 현상은 (9)와 같은 형식화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을

8) 이혁화(2007 : 340)에서 이 현상은 “문장이 끝나는 위치에서 시간적인 단위가 상대적으로 길게 실현되는 특성을 가진 문말 억양이 종결어미에 수반되어 실현됨으로써” 가능하다고 파악한 바 있다. 이는 곧 특정 위치에서 변이 현상이 더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억양과 관련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완전히 이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현상을 공식적으로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첨가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며, 첨가되는 분절음이 음소적으로도 모음 ‘이’(i)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 첨가의 원인

(9)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절음이 첨가되는 환경은 모음과 반모음 j 사이이다. 그러나 ‘V\_j’라는 환경에서 어떤 분절음이 첨가된다고 서술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설명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첨가 현상을 보이는 몇몇 예들을 통해 이러한 첨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0) ㄱ. 기(龜)-어 기어~겨 :~기여, 사이-에 사이에~사이예  
 ㄴ. 주(授)-어 주어~줘 :~주워, 보(視)-아 보아~봐 :~보와<sup>9)</sup>

(10)은 국어에서 일어나는 j, w반모음화와 함께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j, w첨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서 j, w와 같은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모음화 현상은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유재원 1985), 반모음 첨가 역시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음절구조의 연속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강창석 1984 : 270). 그러나 음 연쇄에 있어서 모음충돌의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 (10ㄱ, ㄴ)에서 각각 반모음 j와 w가 첨가되는 현상을 만족하게 설명하

9) 현실 발음에서는 음절 축약 이후에 w가 탈락한 형태인 ‘저 : , 바 : ’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축약 이전의 w가 있는 ‘주워, 보와’ 역시 김성규·정승철(2005 : 267), 이진호(2005 : 144) 등에서 현실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는 어렵다.<sup>10)</sup> (10ㄱ)에서는 왜 모음충돌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반모음 w나 기타 자음이 아닌 반모음 j의 첨가만 일어나는지, (10ㄴ)에서는 왜 반모음 w의 첨가만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0ㄱ, ㄴ)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j와 w의 삽입 현상은, 모음 연쇄인 ‘이 어, 이에, 우어, 오아’에서 선행 모음의 발음이 후행 모음의 발음에 어떤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기적인 연속체로서의 음 연쇄가 발음될 때, 양 극단이 아닌 중간 지역에서는 두 음의 물리적인 속성이 혼재된 상태로 존재한다. 연속체로서의 음 연쇄를 우리는 불연속적인 단위로 분절하게 되는데, 양 극단만을 중시하여 인식하게 되면 두 개의 분절적인 단위로 끊어낼 것이며 중간 지역에서의 혼재된 상태를 별개로 분절 요소로 인식하게 되면 세 개의 분절적인 단위로 끊어내게 된다. 즉 ‘ia, ie, ua, oa’는 두 개의 분절음으로, ‘ija, ije, uwa, owa’는 세 개의 분절음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설 때 우리는 (10ㄱ)과 (10ㄴ)에서 각각 반모음 j와 w가 수의적으로 첨가되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ㄱ)에서는 선행 분절음이 ‘이’(i)이므로 ‘ia, ie’의 중간에서 발음되는 상태의 음을 별개의 분절음으로 (수의적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반모음 j가 된다. 마찬가지로 (10ㄴ)에서 그것은 반모음 w가 된다.

- (11) ㄱ. 먹(食)-고 먹꼬~머꼬      밥(飯)-보다 밥뵈다~바뵈다  
 ㄴ. 아까 아까~약까              아빠 아빠~압빠

(11)은 이른바 중복자음 감축과 중복자음화의 예인데(배주채 1989 : 9

10) 용언 어간말 모음 ‘오/우’ 다음에 w가 첨가되는 현상(10ㄴ)에 대한 역사적 변화 과정은 김현(1999)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10ㄱ)과 같이 체언에 처격조사가 통합되는 경우 말모음 ‘이’가 아닌 경우에도 반모음 j가 수의적으로 첨가되기도 하는데(예 : 치마+에 → 치마예, 학교+에 → 학교예, 안개+에 → 안개예), 이는 김현(1999)에서 지적한 것처럼 음성적인 동기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듯하다.

5~100), 긴장 장애음인 ‘ㅂ, ㅃ, ㅆ, ㅈ, ㅉ; ㅍ, ㅌ, ㅊ, ㅋ’ 앞에서 평폐쇄음인 ‘ㅂ, ㅃ, ㅆ’이 수의적으로 탈락하거나(11ㄱ) 첨가된다(11ㄴ). 이러한 탈락이나 첨가가 수의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배주채(1989)에서는 “음운론적으로 똑같은 가치를 가져야 할 /약끼/와 /아끼/가 연속적인 음연쇄를 분절적인 단위로 쪼갤 수밖에 없는 현대음운론의 기본입장 때문에 서로 다른 음소연쇄인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본고의 해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계기적인 연속체로서의 ‘모음-평폐쇄음-긴장 장애음’ 연쇄는 세 분절음으로 인식되는데, 평폐쇄음과 긴장 장애음의 조음 위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간에서 발음되는 평폐쇄음의 속성을 긴장 장애음의 특정 속성으로 간주하여 음 연쇄를 양 극단으로만 해석하면 ‘모음-긴장 장애음’의 두 분절음으로 인식된다. 또한 ‘모음-긴장 장애음’의 연쇄는 양 극단의 중간에서 발음되는 음성 실현을 별개의 단위로 간주하여 긴장 장애음의 조음 위치와 동일한(혹은 가장 유사한) 평폐쇄음으로 해석하면 ‘모음-평폐쇄음-긴장 장애음’의 세 분절음으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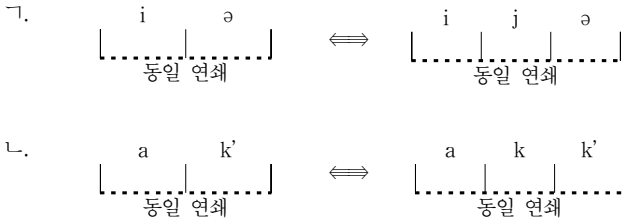
따라서 (10, 11)에서 보이는 첨가 현상의 비실현형과 실현형은, 각각 ‘모음-모음’, ‘모음-긴장 장애음’의 음 연쇄를 양 극단만 인지하여 두 단위로 분절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서 발음되는 음성을 별개의 분절음 단위로 인지하여 세 단위로 분절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sup>11)</sup> 즉 이러한 첨가 현상은 동일한 음 연쇄에 대한 분절 단위의 인식 차이가<sup>12)</sup>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어~이어, 아끼~약끼’에서 문제가 되는 음 연쇄인 ‘ia, ak”

11) (10)은 반모음의 첨가, (11)은 자음의 첨가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모음의 첨가가 일어난다면 새로운 음절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10), (11)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12) 분절 단위에 대한 인식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화자의 인식을 내재적으로 관찰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9)와 같은 표기의 양상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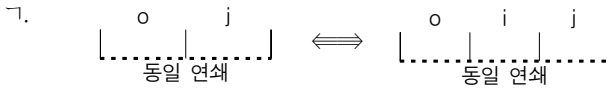
를 두 분절음으로 쪼개는지(12ㄱ), 아니면 세 분절음으로 쪼개는지(12ㄴ)에 따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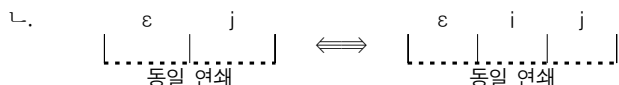


본고는 ‘오야~오이야, 호배야~호배이야’ 등의 예에서 이루어지는 ‘이’(i)와 비슷한 분절음의 첨가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파악한다. 실제적으로는 연속체인 음성형을 인지적인 단위인 분절음으로 해석해 낼 때에, 중간적인 상태에 있는 발음을 인식하여 분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이’(i)와 비슷한 분절음으로 간주된다. 분절음 연쇄의 차원에서 기술하자면 그것은 곧 첨가가 일어나는 것이다.<sup>13)</sup>

(13)



13) 흔히 반모음 j의 첨가는 국어사적으로 ‘가마>가매, 방아>방애, 놀라 → 놀래-, 만나 → 만나-’ 등과 같은 예에서 일어나는 통시적인 현상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전승 1986, 백두현 1992, 강희숙 2010) 이들 예에서 보이는 j 첨가는 그 환경을 엄격하게 정의하기 힘든 데 비하여, 현대 경상방언에서 나타나는 변이 현상으로서의 j 첨가는 반모음 j에 의해 유발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 2. 첨가되는 분절음

이상에서 우리는 첨가되는 분절음을 “이’(i)와 비슷한 분절음”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 분절음에 대한 음소 분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 분절음이 어떤 음소로 분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14) 오야~오이야, 야야~야이야, 호배야~호배이야, 주요~주이요

(14)은 앞의 (8)에서 표기한 형식을 다시 보인 것인데, 이러한 표기가 수의적으로 가능한 것을 통해서도 첨가되는 분절음이 모음 ‘이’(i)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절음을 음소적으로 모음 ‘이’, 즉 /i/인 것으로 판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음절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첨가되는 분절음을 음운론적으로 모음 ‘이’라 판정하게 되면 음절수에 있어서 (10)에 표기된 ‘오이야, 야이야, (호)배이야, 주이요’ 등은 3음절로 해석된다. 현대국어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음절 경계가 놓이게 되므로 ‘oija, jaija, peija, ʃuijo’ 등은 모두 ‘o\$Si\$ja, ja\$Si\$ja, pe\$Si\$ja, ʃu\$Si\$jo’ 등과 같이 3음절인 것으로 해석된다.<sup>14)</sup>

14) 국어의 음절 구조는 학자에 따라 달리 상정되어 논의되어 왔다. 김진우(2008)에서는 그동안 제안된 음절 구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대체로 음절 경계가 위치한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여기에서는 배주체(1996), 이병근·최명옥(1997), 최명옥(2004)와 같이 초성과 중성, 종성이 단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음절 구조를 상정한다.

반면 첨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식은 ‘오야, 아야, (호)배야, 주요’ 등은 여전히 2음절로 분석된다.

그러나 분절음의 첨가로 말미암아 음절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화자들의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현상은 수의적인 현상으로서 (13)에서와 같이 동일 음 연쇄를 몇 개의 분절음 단위로 끊어내느냐에 따라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갈리게 된다. 하지만 분절음 차원에서의 인식과 음절 차원에서의 인식은 다를 수 있다. (10)에서의 ‘기어~기여’, (11)에서의 ‘아빠~아빠’ 역시 두 분절음 연쇄를 세 분절음 연쇄로 인지하여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각각 반모음 j, 자음 ㅂ이 첨가되는 것으로 기술하는데, 동일한 연쇄에 있어서 운율적인 단위라 할 수 있는 음절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상 방언의 화자들은 (14)의 변동에서 음절수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분절음의 첨가 이전과 이후는 운율적 단위로서의 음절 차원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은 분절음의 첨가 이전의 실현형과 첨가 이후의 실현형은 성조의 측면에서도 변동이 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 (15) ㄱ. /kuj/(耳), /uj/(上),  
 ㄴ. /pauj/(岩), /sauj/(壙)  
 ㄷ. /s'amaguj/(痣), /s'imbaguj/(苦菜), /k'amaguj/(鳥)

(15)의 예는 충남방언에서 하향이중모음이 실현되는 예인데(곽충구 1982), 이들 이중모음의 두 번째 요소는 음성적으로 모음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음운론적으로 반모음 j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분석 태도는 음절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즉 음운론적으로 (15ㄱ)은 1음절, (15ㄴ)은 2음절, (15ㄷ)은 3음절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음운론적으로 반모음 j가 포함된 /uj/로 분석되는 것이다. 유사한 음성적 실

체를 보이면서도 모음 ‘이’(i)와 반모음 j로 각각 달리 이해되는 ‘oi’(瓜)와 ‘oj’(ojgaŋ<sup>1</sup>ip, 外家宅) 역시 2음절로 인식되느냐 1음절로 인식되느냐 하는 차이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음성적으로 모음 ‘이’(i)와 유사하면서도 독립된 음절을 이루지 않는 분절음은 음운론적으로 반모음 j로 처리할 수 있다. 결국 (14)에서 첨가되는 분절음은 음절수에 있어서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모음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존재로서, 음운론적으로는 반모음 j인 것이다. 한글을 이용한 전사에서는 반모음 j를 따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반모음 j를 드러내기로 한다. 아울러 경북 서부방언에서 실현되는 성조를 함께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R : 상승조, H : 고조, L : 저조).

(16)

오야	~	오   야	야야	~	야   야
o\$ja		oj\$ja	ja\$ja		jaj\$ja
R H		R H	R H		R H
호배야	~	호배   야	주요	~	주   요
ho\$be\$ja		ho\$bej\$ja	ʃu\$jo		ʃuj\$jo
H L L		H L L	R H		R H

둘째는 성조 기술과 관련된 문제이다. 성조는 음장과 마찬가지로 음절 전체에 걸리는 운율적 특성으로 이해되는데, 첨가되는 분절음을 모음 ‘이’로 처리할 때에는 성조 기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경북 서부방언의 성조형 중에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고조가 걸리고 나머지 음절은 모두 저조가 걸리는 특징적인 성조형이 존재한다. 1음절 어간

‘잡-’(執)에 특정 부류의 어미가 통합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17) ㄱ. 잡더라   | ㄴ. 잡더라도        |
| ㄷ. 잡겠더라도      | ㄹ. 잡겠더라 카고     |
| ㅁ. 잡겠더라 카겠고   | ㅂ. 잡겠더라 카더라도   |
| ㅅ. 잡겠더라 카겠지만도 | ㅇ. 잡겠더라 카겠지만서도 |

(17ㄱ~ㅇ)은 3음절에서 10음절에 이르기까지 음절 수는 다양하지만, 이들의 성조형은 하나의 기식군으로 발음될 경우 고조가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들의 성조형은 ‘LHL, LLHL, LLLHL, LLLLHL, LLLLLHL, LLLLLLHL, LLLLLLLLHL, LLLLLLLLLHL,’ 등과 같은 고조(H)가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특성이 있다(이혁화 1994 : 52~53). 그런데 이러한 성조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첨가되는 분절음을 모음 ‘이’(i)로 처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8)

ㄱ.	ㄴ.	ㄷ.
안 캐여 (LHL)	안 캐   여 (LHL)	안 캐이여 (*LLHL)
안 잡아여 (LLHL)	안 잡아   여 (LLHL)	안 잡아이여 (*LLLHL)
안 잡았어여 (LLLHL)	안 잡았어   여 (LLLHL)	안 잡았어이여 (*LLLLHL)
안 잡았더라여 (LLLLHL)	안 잡았더라   여 (LLLLHL)	안 잡았더라이여 (*LLLLLHL)

(18ㄱ)의 예들은 모두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고조가 걸리는 성조형으로 실현된다. 주의적으로 첨가되는 분절음을 반모음 j로 처리하게 되면 (18ㄴ)은 음절 차원의 변동이 없으므로, 성조의 측면에서는 (18ㄱ)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즉 (18ㄱ)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인 'khe, ba, s'ə, re'에 걸리던 고조(H)가, (18ㄴ)에서는 각각 'khej, baj, s'əj, rej'에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첨가되는 분절음을 모음 '이'(i)로 분석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8ㄷ)처럼 'khei, bai, s'əi, rei'로 분석하게 되면 음절 수가 하나 늘어나면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은 모음 '이'가 해당된다. 따라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고조가 걸리는 성조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고조(H)는 모음 '이'에 걸릴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실현되는 성조형은 그렇지 않다. 이처럼 성조형의 측면에서 (18ㄴ)으로만 실현되지 (18ㄷ)으로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첨가되는 분절음을 고조(H)를 받을 만한 단위인 독립적인 음절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8)의 예 중에서 '안 잡아여'에 대한 음절 실현과 성조 실현을 보이면 (19)와 같다. (19ㄱ)은 분절음 첨가가 실현되기 이전이며, (19ㄴ)은 첨가되는 분절음을 반모음 j로 파악한 것이다. (19ㄷ)은 첨가되는 분절음을 모음 '이'로 파악한 것인데, 이러한 성조 실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 (19)

<p>ㄱ.     안     자     바     여     ㄴ.     안     자     바       여                  an    dʒa   ba    jə           an    dʒa   baj    jə</p> <p style="text-align: center;">┌───┬───┬───┬───┬───┐           ┌───┬───┬───┬───┬───┐                  L     L     H     L                   L     L     H     L</p>	
<p>ㄷ.     안     자     바     이     여                  an    dʒa   ba    i    jə</p> <p style="text-align: center;">┌───┬───┬───┬───┬───┐                  L     L     L     H     L</p>	

한편 모음 '아'(a) 뒤에서 모음이 실현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중앙어의 '아니다'(不)에 해당되는 '아이다'의 경우 경상방언에서는 '아 | 'aj/로

분석되지 않고, ‘아이’/ai/로 분석된다. 이렇듯 모음 ‘이’로 분석되는 경우의 성조 실현을 보이면 다음과 같은데,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고조가 걸리는 성조형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20)



결국 우리는 음절 수, 성조형의 측면에서 첨가되는 분절음을 음운론적으로 모음 ‘이’가 아닌 반모음 j로 파악하였다. 첨가되는 분절음 j는 선행 모음과 함께 하향이중모음을 형성하여 음절의 측면에서 중성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현상은 반모음 j 앞에서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으로 해석되며, 간략히 반모음 j 첨가로 명명한다.<sup>15)</sup> 이제 (9)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emptyset \rightarrow j / V_j$  (수의적, V는 모음)

15) 해당 분절음이 반모음으로 처리되는 이상, ‘aj, aj, oj, uj, ej’ 등의 하향이중모음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식적인 음운체계 내에서 하향이중모음을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본고의 입장은 유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첨가가 ‘변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언어에는 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수많은 변이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변이 현상이 보다 세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체계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체계의 변화도 초래될 것이다.

#### IV. 반모음 j 첨가의 통시적 의미

중세국어 시기에는 ‘모음-j-모음’(VjV)의 연쇄에서 반모음 j가 첨가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는 현상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 현상은 실현 환경이나 결과 면에서 현대 경상방언에서 보이는 (11~16)의 변이 현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후기중세국어와 현대 경상방언에서 나타나는 반모음 j첨가 현상을 함께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두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한편 언어 변화에 있어 특정 현상의 소멸과 재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중세국어의 ‘애, 예, 외, 위’ 등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반모음 j가 포함된 하향 이중모음(Vj)으로 이해하는 견해(김완진 1964, 허웅 1965, 이기문 1972)와 모음 ‘이(i)’가 포함된 구성인 모음 연쇄(Vi)로 이해하는 견해(박창원 1988, 김종규 1989)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Vj설과 Vi설로 부르고, 이러한 견해에 따라 반모음 j의 첨가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ㄱ. 가야미~개야미, 빻얌~빻얌

ㄴ. 귀-에→귀예, 비-에→비예, 그르메-에→그르메예

ㄷ. 뽀-어→뽀여, 이긔-어→이긔여, 개-아→개야, 곶희-아→곶희야

먼저 Vj설에 따르면 (22)의 예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 반모음 j의 첨가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예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단순히 반모음 j의 첨가로만 기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22ㄱ)의 예들은 반모음 j가 첨가된 것인지 탈락된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즉, ‘가야미>개야미, 빻얌>빻얌’의 변화라면 반모음 j의 첨가가, 반대로 ‘개야미>가야미, 빻얌>빻얌’의 변화라면 반모음 j의 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어느 쪽도 판정하기 어렵다. 한편 (22ㄴ), (22ㄷ)의 예들은 ‘체언+조사, 용언 어간+어미’의 결합으로서 반모음 j가 첨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동일 환경에서 선행하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반모음 j가 탈락한 것처럼 보이는 (23)의 예들도 공존하고 있어 공존형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 (23) ㄱ. 화-에→화예~화예, 히-에→히예~히예  
 ㄴ. 뤼-어→뤼여~무여, 굴히-아→굴히야~굴히야

(23)에서 보이는 수의적 공존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음과 모음 사이에 존재하는 반모음 j에 대하여, “두 음절 사이의 interlude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김완진 1964) 또 “양음절성”에 기인한 유동 현상으로(이상신 1998) 파악하기도 하였다.<sup>16)</sup>

한편 Vi설에 따르면 (22ㄴ), (22ㄷ)의 예들은 모음 ‘이’(i)와 후행 모음이 이어지는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모음 j가 첨가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귀-에’는 ‘kui-əi’에서 ‘i-ə’의 연쇄에서 모음 충돌이 일어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모음 j의 첨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23ㄱ), (23ㄴ)에서 반모음 j가 첨가된 예들과 공존하는 ‘화예, 무여’ 등의 예들에 대해서는, 어간 말에 위치하는 ‘애, 예, 외, 위, 의, 익’ 등을 Vi로 간주하므로 어간말음인 모음 i가 j로 바뀌는 반모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즉 ‘hwai-əi, mui-ə’에서 모음 i의 반모음화 이후에 ‘hwaj-əi, muj-ə’를 거쳐 ‘hwa\$jai(화예), mu\$ja(무여)’ 등이 된다는 것이다.

16) 이상신(1998)에서는 15~16세기에 ‘모음-j-모음’(VjV)는 대체로 ‘V\$jV Vj\$jV’의 표기만 가능했으며 17세기에 이르러 Vj\$V로의 표기가 등장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즉, ‘뵤얌, 뵤얌’과 같은 표기는 15~16세기에 나타나며,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뵤얌, 뵤얌’ 이외에 ‘뵤얌’과 같은 표기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Vj설과 Vi설에 따른 수의적 공존형에 대한 견해 차이를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ㄱ. Vj설

VjV → (반모음 j의 interlude 혹은 양음절성) VjjV → Vj\$jV (뫼여)  
→ (음운과정 적용 없음) VjV → V\$jV (뫼여)

ㄴ. Vi설

ViV → (모음충돌회피에 의한 반모음 j 첨가) VijV → Vi\$jV (뫼여)  
→ (모음 ‘이’의 j 반모음화) VjV → V\$jV (뫼여)

(24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Vi설은 ‘뫼-어→뫼여’를 모음충돌(hiatus) 회피가 동기가 되어 j 첨가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뫼-어→뫼여’를 모음 ‘이’가 j로 바뀌는 반모음화 현상으로 이해하여 각각 j 첨가와 j 반모음화라는 상이한 규칙 적용의 결과로 설명한다. 이 입장에서는 (24ㄱ)과 같이 VjV로 해석할 경우에 ‘뫼-어→뫼여’의 경우 이미 모음과 모음 사이에 반모음 j가 개재되어 있어 모음충돌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모음 j가 첨가되기 때문에 음성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분절 음운론의 관점에서는 분명 VjV의 연쇄가 VjjV의 연쇄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분명 반모음 j의 첨가가 이루어졌는데 VjV의 연쇄는 모음충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반모음을 첨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하지만 VjV의 연쇄가 VjjV의 연쇄로 실현되는 현상을 반드시 모음충돌 회피라는 동기와 연관 지어 해석할 이유는 없다. 모음충돌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모음의 첨가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3~8)의 현대국어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중세국어의 ‘애, 예, 외, 위, 의, 익’ 등이 반모음 j가 포함된 하향이중모음이라는 Vj설로도 (22, 23)의 예를 설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한다.<sup>17)</sup> 중세국어에서 ‘모음-j-모음’(VjV)의 연쇄는 반모음 j의 interlude적 혹은 양음절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네 분절음으로 인식될 때에는 Vj\$jV의 표기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세 분절음으로 인식될 때에는 V\$jV의 표기 방식을 취하게 된다.<sup>18)</sup>

(25)

오야	~	오   야	야야	~	야   야
o\$ja		oj\$ja	ja\$ja		jaj\$ja
R H		R H	R H		R H
호배야	~	호배   야	주요	~	주   요
ho\$be\$ja		ho\$bej\$ja	ʃu\$jo		ʃuj\$jo
H L L		H L L	R H		R H

(25)는 현대 경상방언의 예인데, ‘모음-j-모음’ 연쇄(VjV)가 보이는 수의적 변동이라는 점에서 (22~23)에서 살펴본 중세국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의적으로 V\$jV와 Vj\$jV가 공존하는 현상이라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절음 차

17) 중세국어의 ‘애, 예, 외, 위, 의, 익’ 등을 Vi와 같은 모음 연쇄로 이해할 때 ‘모음-모음’의 연쇄가 한 음절 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부터+이 → 부테’에서 ‘테’의 성조 실현과 비성절음으로서의 반모음 j에 대한 논의는 송철의(1995)를 참고할 수 있으며, 현대국어 ‘의’를 ‘모음-모음’의 연쇄가 아니라 ‘ij’의 하향이중모음으로 해석하는 논의는 이혁화(2012)를 참조할 수 있다.

18) 복합어 ‘뵤우퇴, 미업다, 비알타’ 등을 제외하면(이현희 1991) 중세국어에서 Vj\$V의 표기는 드문 편인데, 이는 중세국어 시기에서 모음 사이에 반모음 j가 위치할 경우에 그 반모음을 다음 음절의 성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던 듯하다.

원에서의 인식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 바 있다. 즉 기술적으로는 반모음 j의 수의적인 첨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연속적인 음성형을 분절음 단위로 분절해 낼 때에 몇 개의 단위로 분절하는가와 관련된 인식의 차이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분절 차원에서의 인식의 차이는 곧 (22~23)에서 파악한 반모음 j의 interlude적인 혹은 양음절적인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19)</sup>

물론 중세국어와 현대 경상방언의 ‘모음-j-모음’ 연쇄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수의적 현상 자체의 음운론적인 성격이나 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환경 자체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 중에서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형태가 많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 ‘모음-j-모음’ 연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 경상방언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모음-j-모음’ 연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이 역사적인 단모음화 과정을 거쳐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세국어와 달리 반모음 j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요, -야, -예, -여 등) 다수 생겨남으로써 현대국어에서는 다시 다양한 위치에서 ‘모음-j-모음’의 연쇄가 이루어졌으며, 현대 경상방언에서는 이러한 ‘모음-j-모음’의 연쇄가 다시 ‘모음-jj-모음’의 연쇄로 해석되는 변이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현상을 매우 단순화시키면 중세국어와 현대 경상방언에서 분절음 차원에서 ‘모음-j-모음’ 연쇄가 수의적으로 ‘모음-jj-모음’의 연쇄와 공존한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의적 공존 현

19) 반모음 j가 두 개의 분절음으로 인식할 경우 두 분절음 jj는 서로 다른 음절에 소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j가 interlude적인 혹은 양음절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의 분절음 j가 서로 다른 음절에 소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것인데, 이 문제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듯하여 더 이상 상론하지 않는다.

상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변이 현상이 특정 방언에서만 일회적으로 실현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님을 알려 주고 있다.

## V. 마무리

이상에서 우리는 현대 경상방언에서 실현되는 반모음 j에 의한 반모음 j의 첨가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현상은 경상 방언에서 흔하게 실현되는 변이 현상이지만 기존의 논의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현상이었다. 논의된 중요 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가여~가 | 여, 먹어여~먹어 | 여, 조여~조 | 여, 주여~주 | 여, 빼여~빼 | 여’ 등과 같은 변이 현상이 경상 지역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데, 이러한 수의적 변이 현상은 형태소 경계는 물론이고 형태소 내부에서도 실현된다. 이때 첨가되는 분절음은 음성적으로 모음 ‘이’와 유사하지만 독립된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므로 음절 구조적 측면에서 반모음 j로 해석하였다. 경상 방언에 존재하는 성조의 관점에서도 첨가되는 분절음은 독립적인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모음 j로 처리하였다.

반모음 j 앞에서 이루어지는 j 첨가의 원인은 음성 분절의 과정에서 ‘모음-j-모음’을 ‘모음-jj-모음’으로 분절한 사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적으로는 연속체인 음성형을 인지적인 단위인 분절음으로 해석해 낼 때에, 중간적인 상태에 있는 발음을 따로 분절하여 분절음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경상방언의 이러한 변이 현상이 중세국어 시기에 존재한 ‘모음-j-모음’의 연쇄가 ‘모음-jj-모음’의 연쇄로도 표기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곧 경상 방언에 존재하는 변이 현상이 경상 방언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되풀이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창석(1984),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운규칙』, 『국어학』 13, 국어학회, pp.199~228.
- 강희숙(2010), 『/j/ 첨가와 전남방언 분화』,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pp.227~251.
- 곽충구(1982), 『아산지역어의 이중모음 변화와 이중모음화』, 『방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27~55.
-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완진(1964),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편)』 4, pp.49~66.
-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2010),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하여』, 『어문연구』 38-4, 한국어문고육연구회, pp.35~66.
- 김진우(2008), 『국어 음절론』, 『한글』 282, 한글학회, pp.5~33.
- 김현(1999), 『모음간 w탈락과 w삽입의 역사적 고찰』,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pp.195~254.
-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창원(1988), 『15세기 국어의 이중모음』, 『경남어문논집』 창간호, 경남대, pp.63~88.
-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1996), 『국어 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송철의(1995), 『국어의 활음화와 관련된 몇 문제』, 『단국어문논집』 1, 단국어문연구회, pp.269~292.
- 양희주(2008), 『부산말사전 니 어데 갔더노?』, 도서출판 조양.
- 유재원(1985), 『현대 국어의 모음 충돌 회피 현상에 대하여』, 『한글』 189, 한글학회, pp.3~24.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병근·최명옥(1997), 『국어 음운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이상신(1998), 『VyV 연쇄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강의』, 삼경문화사.
- 이혁화(1994), 『금릉방언의 성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2007), 『경북 서부방언의 종결어미 ‘-어여’』,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pp.335~360.

이혁화(2012), 『국어 음운론의 용어 ‘반모음, 이중모음, 중성’에 대한 검토』, 『한글』 296, 한글학회, pp.5~39.

이현희(1991), 『중세국어의 합성어와 음운론적인 정보』, 『석정 이승욱선생 회갑기념 논총』, pp.315~333.

정승철·정인호(2010), 『이중모음』, 태학사.

최명옥(2004), 『국어 음운론』, 태학사.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 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7-2, 7-14, 7-17, 8-10, 고려원.

허웅(1965), 『국어음운학(개고신판)』, 정음사.

**Abstract**

The variation of the semivowel j insertion by the semivowel j  
—focused on the Gyeongsang dialect in Korean—

Lee, Hyeok-hwa

There is a phonological optional variation in Gyeongsang dialects that semivowel j is inserted by semivowel j. This variation is not relative with the non-phonological information, but what is the reason of insertion and what is the inserted segment in phonemic level have not fully discussed until now. In this thesis, j insertion is occurred in the interpretational course of the physical sequence into the discontinuous segment. And the inserted segment is understood as the phonemically semivowel j in the evidences of the syllable number and tone pattern. Additionally the property of variation that can be repeated diachronically is ascertained by relating between the variation of the co-occurrence VjV and VjjV in the modern Korean and the similar variation in the middle Korean.

Key words : Gyeongsang dialect, variation, semiveowel j, phonological interpretation and explanation, the reason of insertion, the inserted segment

이혁화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소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3-810-2129

전자우편 : lhhs@ynu.ac.kr

이 논문은 2013년 3월 2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